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8월 18일(주일) 제1258호

2019년 여름아웃리치 결산 / 성령의 바람 온 세계위에

그 붉은 땀방울에는 '복음' 과 '사랑' 이 담겼다

올해 국내외 아웃리치 359개 팀 8,927명 참가
차세대 여름캠프에는 95개 팀 9,623명 참석

‘성령의바람을 온 세계위에’를 주제로 실시된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총 359개 팀, 8,927명이 참가했다. 해외 189개 팀 3,411명, 국내 170개 팀 5,285명이었다. 성인공동체 해외 85개 팀 1,830명, 국내 74개 팀 3,664명, 대학청년부 해외 47개 팀 712명, 국내 77개 팀 1,240명, 차세대 해외 17개 팀 308명, 국내 17개 팀 347명, 의료선교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180명, 예수제자학교 415명이 참가했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서도 맞춤형사역을 실시했다. 주요지역은 전도, 차세대 캠프, 빈민 사역, CGNTV 안테나 설치, 어르신 섬김 사역, 마을잔치, 어린이 사역, 선교사 위로, 비전트립 등이었다.

올해는 뜻 깊고 의미 있는 아웃리치가 많았다. 한강공동체는 인도네시아 CGNTV 지사 설립을

돕고자 인도네시아 메단지역을 방문해서 현지 부족과 교회, 선교사 자녀들을 섬겼다. 의료선교팀 CMN 시온팀은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으로 는 사상 처음으로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했다. 코트디부아르의 행정 수도 아비장(Abidjan)에서 십여 명의 아웃리치 팀원들이 주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실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줬다.

차세대 여름캠프의 열기도 뜨거웠다. ‘모세(Moses) 세 가지 선물’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 차세대 여름캠프에는 95개 팀 9,623명이 참석했다(학생 7,108명, 교사 2,515명). 8월 24일 인천 꿈팡이 차세대 여름캠프의 대미를 장식한다(관련기사6-9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M미션, ‘Harvest 2019’ 개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 연합집회 ‘Harvest 2019’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Level up’을 주제로 막 오른다. 러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미얀마, 몽골, 인도 등지에서 온 이주민 550여 명과 봉사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Harvest 2019에서는 세 번의 예배, 간증 나눔, 문화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도육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 은 목사(안산M센터 베트남어예배 담당), 레비 아르난 목사(필리핀 그린힐크리스천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Harvest 2019 봉사자 120명을 모집하고 있다. 예배, 숙소 세팅, 식사 준비, 의료, 통역, 접수, 사진영상, 차세대 사역 등을 섬

겨줄 성도들을 여타게 기다리고 있다. 8월 28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드림홀, 9월 4일 오후 6시 양재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Harvest 2019 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Harvest 2019 집회에서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는 8월 25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물품 후원도 받고 있다. 빵(식빵, 크루아상, 베이글),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콘플레이크, 믹스커피 등 750인분, 국그릇과 종이접시 등이 필요하다.

문의: 자원봉사자 010-9958-6532

물품후원 010-4732-4371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시니어 아카데미 9월 4일 개강

서빙고 두란노홀, 양재 드림홀

65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 시니어 아카데미가 9월 4일(수)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가하면 노년을 가치 있고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빙고는 9

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 양재는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매주 주일 목회행정실이나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당일 현장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서빙고 3만 원, 양재 5만 원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263

양재 02-570-7469

/ 권찬송 기자

도곡 주일 3부 예배 신설

오후 1시 50분 숙명여고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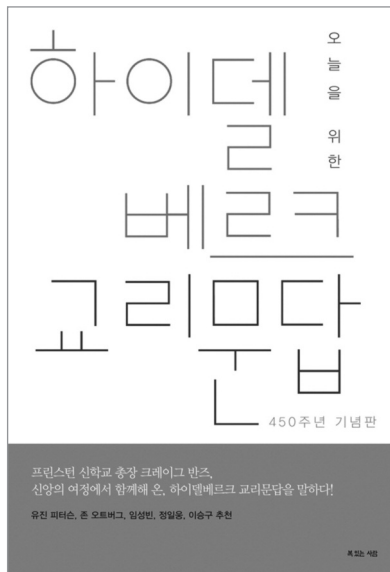
도곡교육관 3부 예배가 신설됐다. 9월 1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1시 50분에 숙명여고

등학교 강당에서 드린다. 강남C공동체가 예배를 섬긴다. 방송실 자막, PPT 등을 섬겨줄 봉사자도 모집한다. 주차는 숙명여고 운동장에 하면 된다. 문의: 02-570-7443-5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거룩한 대화



〈오늘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크레이그 반즈 저 | 복있는사람 | 12,000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적 경험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친숙해지거나 익숙해지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기독교 교리’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에게 교리란 딱딱하고 지루한 주제로 인식되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시중에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서적을 찾아보아도 갈증을 쉽게 해소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도전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Heidelberg Catechism)은 1563년 독일의 개혁파 교회가 채택한 교리문답이다. 당시 독일의 정치지도자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영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 루터파에서 개혁파로 개종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개혁파 신앙으로 통일하고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자에게 교리문답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당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가 이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26세 목회자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Kaspar Olevianus)가 함께 했다. 우르시누스가 이 작업을 하던 때는 개신교 진영이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뉘어 서로를 대적하며 논쟁하고 있었다. 이 작업에 참여한 학자와 목사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차이의 이면에 보편적인 소망의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공통된 신앙적 확신이 있었다.

교리문답서는 총 129개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부는 ‘인간의 비극에 대하여’를 주제로 율법에 의한 죄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제2부는 ‘인간의 구속에 대하여’를 주제로 사도신경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고, 성례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3부는 ‘감사에 대하여’를 주제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개혁주의 노선의 교리문답 가운데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의 개혁교회까지 이를 채택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문답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당시 기록된 많은 고백 문서들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관련한 주도면밀한 신학적 주장으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인간이 처한 곤경으로부터 시작한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대한 주의 깊고 체계적인 진술을 제공함은 물론 수많은 선택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영적인 권면을 건네고 있다.

사뭇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교리에 관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과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었던 이야기들을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누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리문답을 적절하게 녹여내고 있다. 저자의 의도 역시 교리문답이 신앙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되뇌어 암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절박한 존재론적 불안과 수세기를 걸쳐 전해 내려오는 성경의 고백 간에 대화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교리문답의 핵심은 기계적으로 정답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거룩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교리문답은 수세기에 걸쳐 신앙의 선배들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삶의 치열한 흔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서를 접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신앙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한호 목사
(Pole2대학부)



Q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답: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훌륭하지만 그 어떤 분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다. 옆집에 사는 친구 부모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나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부모님이시듯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전도할 때 전도대상자에게서 “종교가 대개 비슷하지 않나요? 다들 좋은 소리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은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보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만 가라고 하느냐?’ 또는 ‘대부분의 종교가 죄짓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는 식의 좋은 말 일색인데 왜 꼭 기독교(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이다. 이 경우 ‘구원의 확신’ 질문을 점층적으로 삼

아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복음까지 전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하는 전도대상자에게 실제 기독교만큼 자비(은혜)의 종교도 없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이 건물에 무너져 선생님과 제가 지금 함께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천국이나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경우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한다. 물론 천국이나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이나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이때 천국은 착한 일을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해준다.

“천국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집에 망나니 같은 자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옆집에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주 착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

다. 내 자식은 밤 12시가 넘어도, 새벽 2~3시가 되어도 자기마음대로 집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옆집 아이는 아무리 착할지라도 우리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옆집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자식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부모의 은혜 덕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 2:8-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새벽 2~3시에 귀가하다가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열쇠가 없으면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열쇠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예수만 열쇠인가?’라는 생각

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훌륭하지만 그 어떤 분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여러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가다보면 산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내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 4:16)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시며 천국의 열쇠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7가지 치명적인 죄(7) - 탐색

마태복음 5:27~30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공허함을 채워야 합니다.
그 길이 바르고, 승리이고, 생명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의 마지막 죄는 ‘탐색’입니다. 영어로는 ‘lust’입니다. 탐색은 성에 대한 지나치고 왜곡된 욕구입니다.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의 대부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왜곡되어 지나치게 변화된 것들입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악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정의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곡된 정의감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분노, 겉으로는 정의감이지만 그 속에 이기심을 품고 표출하는 잘못된 정의감이 분노입니다. 허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허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되고, 위선에 빠지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성에 집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끔찍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탐색의 죄로 인하여 짙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선정적인 성적노출을 평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장치마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편협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헛된 이념으로 인간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은 결코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다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데지 않겠느냐?” (잠 6:27~28).

불을 품는 것은 엄청난 화상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불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만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이 하나님의 질서를 뛰어넘으면 우리를 불태우는 무서운 불이 되고, 엄청난 화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곡된 성의 문제, 탐색의 문제를 피해가시지 않고 정면으로 지적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27~28절).

당시 바리새인들은 십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몸의 문제, 외형적인 문제로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로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이 사회의 문화를 환경이나 상황, 사람들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탐색이란 마음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성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마음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리적 증상 용어 가운데 ‘동반의존성’(codependency)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받아야 할 사랑과 돌봄이 부족한 경우에 생깁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경우에 중독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적인 대상으로 전환되면 성중독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모든 동반의존자가 성중독자는 아니지만, 성중독자의 대부분이 동반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성적 욕구로 대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적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중독자가 나오기 쉽습니다.

성은 무섭게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한 감정, 상처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에 무섭게 몰입하게 해서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적인 욕구로 대체되면 위상승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방신, 바알, 아스다롯 등이 성적인 죄악과 결부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은 결코 우리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성적인 탐닉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영원을 망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의미, 영원한 관계를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순간의 쾌락에 빠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입니까, 욕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남자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여성들을 쳐다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남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눈을 통한 성적만족은 탐색의 길로 들어가는 초기 증상입니다. 눈이 마음을 끌고 가고, 눈이 마음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탐색의 죄, 성적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이 되고, 간음이 됩니다. 눈을 통제하지 못해서 멸망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색에 빠져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눈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삼손과 정반대로 성결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적으로 순결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눈과 연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욥 31:1, 7).

‘내 눈과 연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눈을 바르게 지킴으로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적 성적 자극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이 성결을 지켰던 비밀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TV나 영화 등 온갖 세상의 문화를 보면 성적인 노출이 일상화되고 당연해졌습니다. 왜 자동차를 파는데 옆에 여자가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지면서 남성들의 눈이 점점 성적인 탐닉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남성 중 10%는 욕처럼 성적 유혹을 잘 극복하지만, 10%는 정반대로 삼손의 길로 가는, 문제가 심각한 중독자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입니까, 욕입니까? 혹 주일에는 욕, 평일에는 삼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욕, 혼자 있을 때는 삼손 아닙니까? 모든 남자 성도들이 욕처럼 눈과 연약을 맺고, 눈을 통해 성적인 탐닉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29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눈을 빼더라도 또 다른 기능이 그러한 욕구를 대신할 것입니다.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30절).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은 어떤 구절의 문자적 의미와 다른 구절의 문자적 의미가 서로 반대될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과 손을 빼라는 것은 그 정도로 동일한 결단, 결심,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없는 것처럼 보지 않고, 손이 없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미가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죽이는데 고통스럽다거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겪을 고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탐색의 유혹을 끊는 방법

그렇다면 남성들이 어떻게 탐색의 유혹을 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 눈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눈을 철저히 굽히는 것입니다. 눈은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눈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이 강화됩니다. 눈이 통제되지 않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훈련부족과 습관일 뿐입니다. 눈은 순전하게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보다 영적 순결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남성들과 더불어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를 보면, 남자가 성적 유혹을 통제하는 능력을 얻는 중요한 요인은 다른 남성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우정관계를 말합니다.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과 우정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비교적 유혹에 덜 빠진다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목회자 자녀(PK)들의 솔직한 고백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 지나친 기대와 관심, 시선 집중
PK들아 “남들이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를 찾자!”

완벽한 천사, 성경 척척박사, 비범한 신학자...

목회자 자녀(PK, pastor Kids)들을 향한 보편적인 시선이 반영된 표현들이다.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 자녀들은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모습을 갖추고 있기를 기대한다. 목회자 자녀들은 남들과 다른 신앙적 성숙이 필요하고, 성경에 관해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나친 관심과 기대가 목회자 자녀들을 참 많이 아프게 한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 자녀들이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존 파이퍼 목사의 아들 바너버스 파이퍼는 “목회자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조언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드디어 자유대!”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를 떠나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다. 본당 위치를 몰라 교회 로비에서 주눅터리던 그 어색함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른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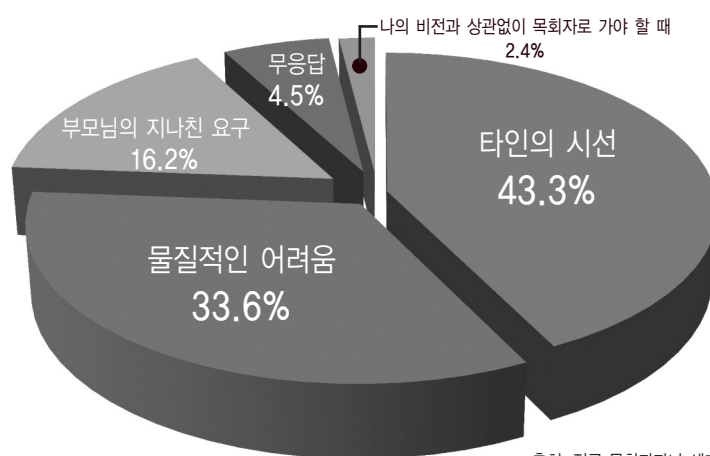
나는 목회자의 자녀다. PK(Pastor Kids)라고도 불린다. PK라는 이유만으로 참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나를 보면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시고 손 잡아주시는 권사님들의 사랑이 늘 그 근처를 기웃거리게 만들었다. 모두들 어려워하는 장로님들과도 스스럼없이 지냈다. 장로님들과 웃으면서 장난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였다. 만날 때마다 엉덩이를 두들기며 반갑게 인사해주시던 집사님의 애정표현도 너무 좋았다. 하지만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관심을 받을 때도 많았다. 그 부담스러운 시선들이 교회라는 공간을 숨이 턱 막히는 곳으로 만들기도 했다. 내가 진학하는 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다. 학교에서도 안 하는 교복치마 길이 단속을 집사님에게 당하기도 했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온 교회에 소문이 퍼졌다. 내가 음식점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까지 소문이 돌았다.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꽤 흔하게 일어난다.

최근 연애를 시작한 J자매(24)는 원치 않게 사생활이 공개됐다. 목회자 자녀인 J자매는 남자친구와 같은 동네에 살지만 성도들의 눈을 피해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데이트를 했다. 그런데 우연히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집사님과 마주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J자매의 연애사가 낱알이 공개됐다.

“교사회의를 마치고 교사들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그 집사님이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랑 남자친구를 본 이야기부터 남자친구 이름, 학교까지 세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아들이 남자친구의 친구였거든요. 본인 아들 친구가 목사님 딸이랑 사귀는 게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목회자 자녀로서 가장 어려운 점



출처: 전국 목회자녀 세미나 설문조사
대상: 목회자 자녀 500여 명

유리여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목회자 자녀들의 삶은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타인에게 노출되어 있다.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시선들이 항상 존재한다. 어떤 목회자 자녀는 이를 두고 “유리여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 수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타인의 지나친 시선과 관심 때문에 몸이 힘들어 한다. 전국 목회자 자녀세미나에서 목회자 자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타인의 시선(43.3%)이었다.

목회자 자녀들은 남에게 비춰질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말과 행동은 기본이고, SNS에 게시글을 올릴 때도 목회자 자녀로서 합당한지 스스로 검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모습이 자칫 부모의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생활하기도 한다. H형제(22)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목회에 지장을 줄까봐 억울한 상황을 참아야 했다. H형제와 집사 자녀가 다녔는데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욕하는 성질이 있다더라”는 엉뚱한 소문이 났다.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 몇 마디 주고받은 게 전부였는데 앞전할 것 같던 목사님 아들이 화를 낸 것 자체가 이슈가 됐다.

“그때 상황에 대해 함께 있던 친구들이 설명을 했는데도 교회에는 제가 화를 났다는 소문

만 퍼졌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더 화를 내거나 문제를 일으켰다가는 아빠가 많이 곤란해지실 것 같았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목회자 자녀로 살아야 한다. S자매(31)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직장에서도 목회자 자녀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학창시절 욕이라고 한마디 하면 친구들이 “너 목사님(S자매 어머니)한테 이른다!”며 장난을 쳤다. 대학 친구들과 술집에 갔다가 가게 앞을 지나가던 장로님과 마주친 적도 있다.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꾸중을 들었다. 직장에도 목회자 자녀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더 많아졌다. 속이 비치는 얇은 셔츠를 입고 회사에 갔더니 직장 동료들 “목사님 딸이 그런 거 입어도 돼?”라고 물었다. 식사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다가 “목사님 딸이 기도도 안 하고 먹네?”라고 핀잔을 들었다. S자매는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던지는 장난과 관심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많이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 자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싶다”고 했다.

목회자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회자 자녀로서의 삶을 강요받는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목회자 자녀이기 때

문에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것이라는 편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편견과 오해들이 목회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곱게 만들기도 한다. 또 다른 목회자 자녀 P자매(26)는 20대 초반 영적인 혼란을 겪었다. 매주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행동이 습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겼다. 지금껏 해온 신앙생활이 모두 거짓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고민을 털어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딸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털어놓는 것도 당연히 어려웠죠. 부모님은 제가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니까요. 이래저래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리더의 자리에 쉽게 부름을 받는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이 또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목회자 자녀 L형제(16)는 중등부 정기총회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겪었다. 중등부 회장 후보로 자신의 이름이 올랐기 때문이다.

“목사님 아들이니까 잘 할 수 있어”라는 집사님의 응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L형제는 다행히(?) 중등부 회장에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목회자 자녀’라는 틀에 가두지 말라

목회자 자녀도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저마다 모습이 있다. 활발한 성격도 있고, 수줍음 많은 성격도 있다. 어떤 목회자 자녀는 성경을 잘 알고, 어떤 목회자 자녀는 성경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부모를 따라 목회자를 꿈꾸는 경우도 있고, 각자 재능에 맞춰 또 다른 꿈을 꾸는 이도 있다. 그들을 ‘목회자 자녀’라는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

유명한 저술가이자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의 아들 바너버스 파이퍼도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교회주차장에서 오디오 볼륨

을 최대한 높이고 록밴드의 음악을 듣다가 한 집사님에게 붙들려 크게 혼이 났다. 록밴드 음악을 함께 들은 친구들은 혼날 일이 없었다. 목회자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나버스 파 이퍼는 그날 일을 “친구들은 그 또래 사내아이였지만 나는 한심한 목회자 자녀가 되고 말았

다”고 회상했다.

그는 저서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서 자신과 주변 목회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목회자 자녀들을 향한 지나치고 그릇된 기대와 추측, 목회자 자녀들의 정체성, 목회자 자녀들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시선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회자 자녀들도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목회자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조언했다.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남들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기를

도전하라”고 권면했다. 목회자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편지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내가 사랑하는 아빠. 보고 싶은 아빠. 아빠가 천국으로 가고 나서 2주 만에 아빠를 불러보네. 하나님 품으로 가니 좋아? 이젠 행복해? 이제는 안 아프지? 편지를 쓰려고 하니가 아빠와 관련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해. 아빠가 어떤 건물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어려웠는지 언니와 나에게 하루 세끼를 못 먹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이후 난 밥 먹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밥을 꾸역꾸역 입으로 넣어야 했어. 배가 불러서 더 들어갈 곳이 없었는데도 말이야. 또 교회가 지하에 있었던 탓에 장마철이면 늘 침수가 되곤 했어. 아빠와 엄마, 나, 언니, 이렇게 네 식구가 지내던 단칸방은 물이 들어와 잘 수가 없었지. 할 수 없이 예배당 긴 의자 두 개를 마주보게 붙여놓고 잤었

지. 그런데 붙여놓은 의자가 평평하지 않아 밤새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잠을 설쳤던 기억이 생생해.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어렸던 나는 크면 거지가 될까봐 걱정도 됐었어.

물론 힘든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야.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국수를 끓여 대접하던 엄마의 모습, 예배가 끝나면 대걸레로 아빠와 함께 예배당 청소하던 기억 등 행복한 장면도 아련하게 떠올라.

20여 년 전 아빠가 서울 큰 교회 청빙을 거절하고 시골에서 다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하는 마음이 컸어. 편하게 목회할 때도 된 것 같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아빠는 인생의 마지막을 그 지역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뛰어들었지. 하지만 잘 변하고 이기적인 일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빠는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 사람들 때문에 힘들

어하는 아빠를 보며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성격으로 변했던 것 같아.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통이고 힘든 삶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느꼈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중에도 항상 엄마, 아빠는 평안해 보였다는 거야.

지난 10개월 간 나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시간이 많았어. 몸에 탈이 날 정도로 헌신했던 사역지에서 여러 이유로 재작년 갑자기 은퇴하게 된 아빠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 게다가 지난해 말에는 췌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은 아빠를 보며 과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원망스러웠어. 그런데 폭풍우 같던 그 시간들이 지나니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바꿔버리신 것 같아. 투병하는 시간 내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던 하나님,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못 할 때면 주위의 돕는 손길로 채워 주신 하나님, 10개월의 투병시간을 주셔서 서로 감사하며 사랑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진

통제도 진정시킬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되뇌는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났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기에 극심한 고통을 참느라 입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황이었는 데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아빠! 아빠가 보여준 믿음을 따라 나도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아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눈물은 많이 나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과 내 영혼은 평안해. 아빠, 내가 엄마 잘 지키고 있을게. 그 곳에서 잘 있어. 나중에 천국에서 봐!



황은아 성도
(강남D공동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엄마와 아빠에게 주었던 기쁨은 이루말도 할 수가 없다.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싶은 마음을 비롯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꼈으면’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또한 ‘아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세요’ 하는 성령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그뿐이겠니? 너희들의 허우적대는 두 팔과 다리를 보고 있으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의 시름과 무게가 어쩔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던지... 너희들의 거짓 없는 몸짓과 표정, 포동하고 보드라운 살결에 중독되어 세상 시름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었다. 아빠는 그 때가 몹시 그림꾸냐!

아들들이 잤은 이사와 다른 환경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니? 아빠는 그것이 가장 미안하다. 서울, 인천, 대전, 부천, 서산! 그뿐이겠니? 같은 도시 안에서도 반복된 이사와 이동, “이사 가기 싫는데... 친구는 또 어떻게 사귀지?”라며 반 친구들과 울며 헤어졌다고 망랑한 눈을 내밀 때, “아빠! 왜 내가 여기 살아야 돼?”라고 차라리 큰 소리로 짜증이라도 내면 좋으련만 조용한 너희들은 체념하듯 아파하더라! 그게 참 미안했다.

‘목사와 아빠’라는 두 얼굴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더군다나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는 너희들의 중압감과 시선을 나는 안다. 부족한 아빠의 시선이 너희들에게 결핍이

되었고 때론 과잉이 되었구나! 아빠도 세상과 교회 앞에서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약한 자녀란다. 아빠는 실통방통한 사람이 아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 다 정답처럼 살지 못한다. 아빠도 몰래 눈물 흘리고, 갈등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인생을 걷는다. 너희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소망되심을 알려주고 싶다.

아빠는 가식적인 문장으로 여러 말을 쏟아놓아 너희 심경을 복잡하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오늘 너희들에게 세가지만 당부하련다. ‘겸손해라!’ 그리고 ‘사람을 살피는 존재가 되라!’ 그리고 ‘유머 있는 사람이 되라!’ 딱 세 가지다.

아빠는 한 가지 꿈이 있다. 사람들이 아빠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바란다.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한다. 거기에 겸손이 있다. 겸손은 특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가지지 못해서 허우적대고 기고만장한다. 그러기에 교만은 결핍이다. 아들아! 너희의 겸손을 악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되 깊은 사림을 가지지는 말아라. 너무 깊은 책임감에 건강을 해치지도 말아라. 너희의 겸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들을 찾거든 너희는 더욱더 겸손해라! 품위와 진정성은 다르다. 교만한 자 앞에서 품위를 잃지 마라. 그리고 거룩하고 겸손한 자 앞에서 진정성을 잃지 마라! 네가 거룩하고 겸손한 자 앞에서 진정성을 잃어

버린다면 너는 품위도 겸손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가식이다.

교만은 거꾸로 흐르는 물과 같더구나! 그래서 썩고 냄새가 나는 것이 교만이다. 교만한 삶은 마치 하수구에 흐르는 물을 퍼다 올려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라! 너의 인사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비굴해 하지 마라! 겸손은 비굴함과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아빠를 보아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과 목회자와 더불어 사역하고 있음을.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쁨이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라는 뻣속 깊은 고백의 결과란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게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이 되라! 아빠는 너희들이 이어폰으로 귀를 막는 것보다 풀의 소리, 사람의 소리, 같이 뛰면서 심장의 소리를 교환하며 사는 것을 원한다. ‘나’라는 말보다 좋은 말은 ‘우리’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짐이다.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살피고 즉, 사람을 살피고 나서야 비로소 총리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우리를 중요시 여기는 이 뜻을 어찌 거역하겠니? 유대인 출신 철학자 레비 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니 기억하게라. ‘나’에

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집중할 때 너의 길이 열릴 것이다.

또 아들아! 유머를 잃지 마라! 아빠가 집안에서도 계속해서 유머를 발굴하지 않더니? 웃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못한다는 말은 패배자의 말이다. 웃을 일이 없어서 못 웃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웃을 생각이 없어서 못 웃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웃어라! 웃음은 창조정신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엄청나게 웃으셨단다. 사람들이 가볍게 본다고? 아마 부러운 것일 거다! 그러니 웃어라! 그리고 유머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글을 쓰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 차라리 너희들의 당돌함과 엉뚱함과 순수함이 냉수 먹고 이 추시는 기존세대들의 가식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임을. 그러니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라! 그것이 창조의 습관이다. 결국 ‘더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짓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빠로서 얼마나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들!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할 것이다. 그럴 것이기에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아빠의 다짐이다.



임용성 목사
(서산 온누리교회)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구원열차!

사촌교회와 농어촌선교팀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교인이라곤 꼬부랑 할머니 5명, 한 달 헌금 고작 5만3천원. 이런 사촌교회(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에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다. 이종민 목사가 5년 동안 사천시 사남면 일대 13개 마을을 매일같이 방문해서 전도한 열매가 맺힌 것이다. 5년 새 교인이 50명으로 늘었다. 무려 10배나 부흥했다. 또한 사촌교회는 2015년부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촌교회에서 진행된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의 아웃리치도 그 일환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촌교회에서 가수 노사연 집사를 초대해 마을주민전도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촌교회를 찾았다. KTX를 타고 진주, 진주에서 택시를 타고 사천시로 들어가서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박진호 팀장과 강명원 집사를 만났다. “사촌교회가 있는 곳은 강원도보다 더 산골짜기예요.”

서울에서 출발한지 6시간 만에 사촌교회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맛을 알 수 있었다. 그야말로 침엽산중에 교회가 있었다. 이곳은 영적으로도 척박한 곳이다. 마을마다 있는 절과 무당집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사촌교회 이종민 목사를 만났다. 이 목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산골까지 와서 목회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솔직한 대답이 돌아왔다. 자기도 정말 오기 싫었다고. 사방이 산으로 딱 막힌 시골이라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주변 환경도 영적인 상태도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택은 낡고 쓰레기가 가득했다. 사택에서 쥐와 지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들 통학도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민 목사가 사촌교회에 온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들도 내 백성이다. 네

가 섬겨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종민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도시의 좋은 목회지를 뒤로 하고 사촌교회로 왔다. 성도라고는 할머니 5명이 고작이었다. 한 달 헌금 5만3천원으로는 교회운영은커녕 전도하기도 빠듯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다. 간절히 기도하며 방법을 찾았다.

전도부터 했다. 가장 돈이 안 드는 계란 한판을 사서 7시간 동안 구웠다. 계란을 먹고 혹여나 어르신들이 목이 막히지 않을까 요구르트까지 곁들여 전도선물세트를 만들었다. 그걸 들고 매일 마을을 돌면서 어르신들을 만났다. 어르신들이 교회 마당이라도 밟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했다. 열과 성으로 전도했다니 주민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한기임 할머니(83세)도 그 중 한 명이다. 할머니는 2017년 7월부터 교회에 나온 늦깎이 성도다. 계기는 화재였다. 밭에 일하러 간 동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집에 불이 나다 타버렸다. 실의에 빠진 할머니를 위로하고, 도움을 준 건 사촌교회 이종민 목사와 윤지숙 사모였다. 친척집에 피신해 있던 한기임 할머니를 찾아가 옷도 사주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보태며 위로했다. 그 정성에 한기임 할머니가 감격한 건 말할 것도 없다. 바로 그 주부터 사촌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우리 목사님 덕분에 이리 살고 있다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사촌교회로 오십시오!”

이종민 목사가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유명 가수를 초대해서 주민초청집회를 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도와줄 교회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응답하셨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지난 2월 우연히 사촌교회를 방문했다. 이종민 목사가 서빙고 농어

촌선교팀원들을 보자마자 “가수초청집회를 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수 노사연 집사 초청집회가 막 올랐다. 집회는 저녁 5시에 시작하는데, 교회에는 아침부터 물려든 주민들로 바글바글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 이미용팀은 예쁘게 파마도 해줬다. 수기팀과 이재성 집사(한의사)의 한방진료도 인기 만점이었다. 전도팀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저녁 5시. 집회장소가 된 마을입구 공터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다.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구원열차’를 주제로 진행된 천국잔치를 축하하고자 사천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면장, 부면장 등 지역 유지들도 한결에 모여들었다. 드디어! 하루 종일 기다리던 가수 노사연 집사가 무대에 등장했다. 마을이 떠나가라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엄마가 생각나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엄마가 생각나네요. 엄마가 사랑했던 찬송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신동식 목사(서빙고 농어촌선교팀)도 주민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다.

“저는 국밥장사를 하시던 할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할머니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사촌교회로 오십시오. 사촌교회가 이 마을과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열차입니다.”

애타게 부르짖는 신동식 목사의 호소에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했다. 다음날 주일예배에 새신자 16명이 교회에 왔다. 7명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았다.

문의: 02-3215-3434, 3436

사촌교회에서 온 편지

제 인생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 해도...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초스피드 5G시대와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웬지 걸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과 경쟁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이 세상의 모습에 교회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올 여름,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 아웃리치가 제가 섬기고 있는 경남 사천 사촌교회에서 3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아웃리치가 열리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

하심과 은혜였다는 말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역이 제 인생에서 과연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제 인생에서 과연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제 앞에 그려집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사촌교회에 오셔서 이 못난 목사를 만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너무나 간절했기에 모든 힘을 쏟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동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영근 장로님, 박진호 팀장님, 총무님과 여러 임원들 및 팀원들, 한방진료 이재성 집사님, 주방팀의 여러 권사님들, 얼굴에 페인트 묻히며 높은 종탑에서 붓질했던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마을을 누볐던 전도팀과 주민들의 머리카락을 예쁘게 잘라주고 맡아준 이미용팀 등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해질 사촌교회의 소식은 분명 변화된 모습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화사하게 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꽃이 지고나면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꽃잎이 떨어져도 잊지 않겠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 해도 사촌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서로의 꽃이 되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민 목사(사촌교회)

김포공동체
필리핀

2010년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나는 1년에 한두 번 여유가 될 때 부부가 함께 놀러갈 생각만 했지, 해외 아웃리치를 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자녀가 생기고 부모가 되면서 ‘아이가 조금 커서 편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을 즈음 신앙교육을 위해서라도 가족이 함께 아웃리치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둘째가 생겼고 시간이 10년 가까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둘째가 아직 어려서 아웃리치는 무리인가 싶기도 했지만, ‘여기서 더 무너지면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아내를 설득해서 김포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기대가 점점 무너졌다. 우선 어린이에 돌을 데리고 준비 모임에 참여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았다. 기껏 참여해도 애들 지켜보느라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다. 회사 상황도 순탄치 않았다. 아내 또한 육아 때문에 많이 지치고 예민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웃리치 떠날 날짜가 다가올수록 처음 가졌던 기대감은 전혀 없고, ‘과연 떠날 수 있을까? 이 상황에 가는 게 맞는 걸까?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과 회의감이 가득했다. 결국 의심과 확신 없는 마음을 품고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김포공동체가 필리핀에서 현지인 가정을 심방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현지에서 도착해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여러 활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어린 둘째를 보느라 이진 아웃리치를 간 건지, 애를 보러 간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아웃리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팀원들에게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다. 마지막 사역 전까지만 해도 내 안에는 아웃리치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전혀 없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왜 여기 왔죠?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라는 질문만

계속 되뇌었다. 하지만 마지막 사역에서 왜 이번 아웃리치를 오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마지막 사역은 현지인 네 가정을 심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정에 20대 후반의 젊은 엄마가 있었다. 젊은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물었는데 갑자기 아이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아이 아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 아빠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젊은 엄마에게 쌓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내 그 젊은 엄마는 서럽게 울더니 기도가 끝나자 고맙다며 거듭 인사를 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말씀하셨다.

“네가 이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속으로만 끔끔 앓고 있던 그 젊은 엄마를 위로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성령님이 그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셨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아주 작게나마 그 축복과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아웃리치를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 받을 헌신된 자들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온누리교회가 Acts 29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이자,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대훈 성도
(김포공동체)강동
사랑부 캠프 간증

나는 이번 사랑부 여름캠프에서 공과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장애인사역본부에서 알려준 기본 자료를 토대로 작업에 돌입했다. 사랑부 멘토로 섬기고 있는 남편이 퇴근 이후 많이 도와줬다. 골리앗을 만들기 위해 융부직포와 우드락, 시트지 등을 자르고, 오리고, 붙였다. 재료가 부족하면 남편이 새벽에 문 여는 재료상을 찾아가 사다주기도 했다. 남편의 물심양면 도움이 이번 여름캠프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우선 우드락으로 2m45cm의 골리앗을 만들었다. 다윗도 만들고, 언약궤 모형도 만들었다. 실물 크기의 언약궤(가로 112.5cm, 세로 67.5cm, 높이 67.5cm)를 사랑부 친구들이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가벼운 소재인 아이소핑크(스티로폼 단열재의 일종)로 전체 모양을 잡았다. 그리고 금색 시트지로 전체를 감싼 다음 띠를 둘러 상단을 장식했다. 그릇 천사의 모양도 만들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을 주제로 강동 사랑부 여름캠프가 시작됐다. 교사들이 많이 부족할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사랑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 집사님들과 부모님들, 온누리교회 청년 40명을 보내주셔서 사랑부 친구들을 일대일로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감사예배를 드리고 신나는 물놀이 시간이 되었다. 사랑부 친구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었다. 사실 비가 온다



강동 사랑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을 주제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는 예보가 있어서 살짝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물놀이하기 좋은 날씨였다.

저녁예배에서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주제로 전경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 같이 묵상했다. 거대한 크기의 모형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를 외치며 공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또 “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할래요!”라고 외치며 5미터나 되는 비닐터널 장애물을 통과한 다음 부정적 감정(미움, 낙심, 화남, 두려움, 좌절)이

적힌 볼링핀을 향해 스티로폼공을 굴려 격파했다. 속으로 사랑부 친구들이 비닐터널 장애물을 혼자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염려했다. 그러나 사랑부 친구들은 너무나 기쁘게 모든 활동에 참여했다. 비록 모형이지만 자기 키보다 큰 골리앗을 무찌르고, 누구의 도움 없이 장애물을 통과했다. 나는 그 대견한 모습을 보면서 연신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여름캠프 둘째 날 예배의 주제는 ‘다윗처럼 노래하며 춤을 추요’였다. 언약궤 앞에서 하

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다윗을 생각하며 율동을 했다. 언약궤를 멘 친구들이 나아가면, 다윗 왕 역할을 하는 친구가 춤을 추었다. 다른 친구들은 공과시간에 만들어놓은 나팔과 탬버린, 소고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언약궤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예배실을 다섯 바퀴 돌면서 춤추고 찬양했다. 수십 명이 나팔을 불어대서 귀가 따갑고 먹먹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환하게 웃으며 찬양했다. 진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신나게, 기쁨으로.

이번 사랑부 여름캠프는 남편과 동역한 기쁨이 큰 캠프였다. 골리앗과 다윗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에게 감사하다. 무엇보다 사랑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도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한마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흥겹게 춤을 추었다. 사랑부 친구들보다 더 재미있어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캠프의 진짜 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강동 사랑부로 거듭나기를 기도한다.

김유미 교사
(강동 온누리교회)

동작공동체 전라남도 영광

하나님, 2019년 아웃리치는 장마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네요. 굵은 빗줄기를 뚫고 영광 땅을 향하는 버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물들을 숨겨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며 몹시 기대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드라마틱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니 이번 비는 어떤 무대장치일까 궁금했지요.

중간 경유지인 ‘변산반도 채석강’에서 공동체 팀빌딩을 통해 형제자매들과 친밀감을 얻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한 분 한 분의 모습 속에 담아두신 예수님의 다양한 사랑의 빛깔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세히 팀원들을 살펴주는 violet, 활기찬 즐거움의 orange, 끈기 있게 끝까지 독려해주는 green, 툭툭 튀는 아이디어뱅크 yellow! 각각이 담고 있는 빛은 혼자 있을 때도 고유의 색을 발하지만, 함께 있을 때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서 발견한 예수님의 빛을 품고 이튿날 일찍부터 송정중앙교회로 갔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참 막막했어요. 비는 주룩주룩 내리죠. 에어컨이 없는 예배당은 우리 속도 모르고 선풍기만 하염없이 돌리고 있고, 열린 창문을 통해 습한 기운이 밀려와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의 인도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셨고, 우리의 마



동작공동체가 송정중앙교회에 방문해 의료사역을 하고 있다.

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지요. 저는 그때 나지막이 마음으로 속삭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더위와 습기를 주셨으니 오늘은 땀으로 흠뻑 적셔지는 것이 나의 일이겠구나” 마음을 바꾸어먹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집안에 머무

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모사였고, 그 덕분에 우리 전도팀은 가가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또 어르신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의료팀과 이·마용팀에서 섬길 수 있었고, 점심에는 맛있는 수육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의 빛은 고스란히 마을 곳곳에 전해졌고, 곳은 상황 가운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네요.

저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해주셨죠. 귀(耳)를 보며 어르신들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주셨지요. 한 어르신께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하셨느냐 물으며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귀에다 건강기록부를 써놓으셨다 설명하니 “어이구, 내 머리 아픈 걸 다 알아주네” 하며 활짝 웃으셨지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어머님이 수고로이 농사지어 자녀들을 키우고, 공부시켜 주시느라 이렇게 몸에는 영광의 훈장이 남았네요. 제가 자녀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려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니 정말 애쓰셨고 감사해요”라며 인사를 전하니 이내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덩달아 제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이 모든 순간에 함께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 온 마을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

다. 환히 미소 짓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김현정 성도
(동작공동체)

한강공동체 인도네시아 메단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한강공동체 지체 26명이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한강공동체 아웃리치의 주요사역은 CGNTV 인도네시아 지국을 섬기고, 현지의 지진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고아원사역을 통해 버려진 영혼을 돌보는 것이었다. 또한 찬양 집회를 열어 지역 교회들이 CGNTV와 협력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현지에서의 여정 못지않게 준비기간도 은혜였다. 3개월 동안 팀원들이 고아들에게 가르쳐줄 라인댄스 3곡, 찬양집회에서 할 썸 3곡, 인도네시아 찬양 5곡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매주 연습이 축제의 연속이었다.

아웃리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고아원사역을 할 때 언어는 달라도 찬양과 율동으로 현지인들과 하나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아원 아이들과 인도네시아어 찬양을 부르며 함께 예배드렸다. 그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라인댄스를 가르치고 함께 춤도 췄다. 그때 고아원 아이들이 “one more(한 번 더)”를 외쳤는데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열악한 하수시설로 인해 오염된 땅 위를 맨발로 다니던 엘림고아원과 등불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예쁜 고급샌들을 준비해 갔다.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샌들을 전해 주면서 한 명씩 꼭 안아주었다. 그 아이들이 힘든 여건 속



한강공동체가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감리교회와 바딕족교회 성도들을 위해 찬양집회를 열었다.

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무슬림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되기를 기도했다.

인도네시아 메단은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 특수한 도시이다. CGNTV는 이곳에 지국을 설치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메단 지역 교회들이 후원회를 조직하고, CGNTV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화교들이 중심이 되는 감리교회

와 바딕족교회를 방문해서 찬양집회를 열었다.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찬양집회를 통해 은혜 받은 현지인들로부터 “다음 해에는 꼭 우리 교회로 와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축제 ‘선교사의 밤’도 진행했다. 대상은 선교사 18명과 그 자녀들이었다. 한강공동체 아웃리치 첫 번째 원칙은 어디를 가든 그 도시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사의 밤 행사를 여는 것이다. 선교사의 밤은 선교사들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과 음식을 대접하고, 선교사 본인과 사모님, 자녀들에게 각각 개별 연보(격려금)를 드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당신이 늘 수고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준비하신 선물이니, 한 번쯤은 사역이나 배우자, 자식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이 연보를 사용하세요.”

한강공동체 아웃리치의 또 다른 원칙은 가는 선교사들(아웃리치 참가자)은 본인의 항공권과 숙박비 등 최소한의 회비만 지불하고, 나머지 공적인 비용은 공동체의 보내는 선교사들(아웃리치를 후원해주는 성도들)이 섬겨주는 것이다. 두 번의 집회를 위한 약기 대여, 장소 대여, 현지 지역 성도들의 식사, 2개 고아원의 선물과 식사, 선교사 헌금과 연보 등 아낌없이 섬겨주신 공동체 리더십들과 권사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준비과정 못지않게 5박 6일의 아웃리치는 숨 돌릴 새 없이 지나갔지만 거기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아웃리치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황옥화 성도
(한강공동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인천 대학청년부

미국, 멕시코

중심이 바로 선 예배자

나는 평소 싱어와 소그룹 예배인도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늘 고민했었다. 그러던 중에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아웃리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다. 대학청년부 아웃리치 일정은 미국과 멕시코의 10개 교회 예배탐방과 갱생자(更生者)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진행됐다. 대학청년부가 대상이고 또 아들이 팀장으로 섬긴다고 하니 참여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혹여 내가 함께하는 것이 팀에 누가 될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학생들과 함께할 성인이 필요하다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됐다.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아웃리치 준비모임을 가졌다. 스킷드라마와 위십을 연습하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눴다. 함께 기도하면서 팀이 점점 하나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인 아웃리치와 중고등부 아웃리치의 교사로 참가한 적은 있었지만 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웃리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청년들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하나 되어 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아웃리치를 출발하던 날, 비밀수호전사 ‘마니또’를 뽑았고 아웃리치 일정 내내 서로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했다. 나도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물으며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우리가 방문한 10개 교회의 예배는 특유한



인천 대학청년부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10개 교회의 예배를 탐방하고 갱생자들을 섬겼다.

색깔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안정적이고 조용한 예배, 클럽문화와 같이 팡팡 튀는 예배, 영화 ‘블랙 가스펠’에 나오는 감성 충만한 예배 등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경험했다. 기타 하나, 그것도 몇 개의 단순한 코드를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는 스페인어예배에도 참석했다.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컸다. 예배형식은 달랐지만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는 동일했다.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중심이 중요하

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다양한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를 뜻하는 ‘서비스(service)’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뜻하기도 하지만, 회중을 배려하고 섬기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섬김의 한 방법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음향, 조명, 복장, 자막, 섬기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 하나까지 신경 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배탐방뿐만 아니라 매일의 말씀 묵상과 나눔, 관계훈련을 통해서도 우리 팀원들을 훈련시키셨다. 각자가 공동체에서 우리로 녹아들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정체성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배웠다.

마지막 날 드렸던 두 교회의 설교제목이 거의 똑같았다. 두 메시지 다 ‘삶의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주 안에서 상황을 직면하고 돌파하라’는 것이었다. 아웃리치를 마무리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일상으로 돌아가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삶의 예배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인생의 놀라운 시간, 환상적인 아웃리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을 선포하며 삶과 사역의 본이 되신 두 분 목사님들께 감사하다. 아울러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중심이 바로 선 예배자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한다.

“아웃리치에서 받은 은혜가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김수연 성도
(인천 온누리교회)

CMN 라파팀

네팔

네팔 꼬혈뿔에 응답하신 하나님

의료선교팀 CMN 라파팀이 올해 처음으로 해외 아웃리치에 도전했다. 안산M센터 봉사자들을 주축으로 네팔의 작은 도시 꼬혈뿔 교회를 찾아 갔다. 아웃리치 60일이 남았을 무렵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다.

아웃리치 30일이 남았을 때는 광고와 소개를 한 덕분에 아웃리치 팀원이 많이 보충됐다. 의외로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어우러진 환상의 드림팀이 모였다. 매주 모여 합심기도를 했고, 꼬혈뿔 교회 예배에서 부를 찬양과 간단한 네팔어를 연습했다.

비가 많이 온 탓에 꼬혈뿔은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겨 있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단아한 교회건물을 보면서 선교사, 현지 목회자, 성도님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진료를 받으러온 주민 대부분이 복부에 가스가 차는 병을 앓고 있었다. 햇볕이 강해서 피부병이나 외상환자도 많았는데 치료시기를 놓친 분들이 많아 안타까웠다.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환자는 수두증을 앓는 4세 된 남자아이였다. 머리가 지나치게 부풀어 있었고 안구가 돌출되어있고 몸이 축 늘어져있었다. 통성으로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힌두교인 부모가 다음 주일 또 아들을 안



의료선교팀 CMN 라파팀이 네팔 꼬혈뿔교회에서 의료사역을 진행했다.

고 와서 기도를 받으셨다고 한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지금 네팔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확신하며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사흘 동안의 진료

를 마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 평소보다 낮은 기운을 유지해주셨다. 팀원들 간에도 단 한 번의 불협화음도 없었으니 우리가 기도한대로 미리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다.

진료를 마친 다음 날은 오지마을의 가정교회를 방문했다. 카스트제도 아래 있는 네팔에서 4계급의 최하위층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s)들이 사는 마을에 세운 가정교회였다. 아무지개 다져진 토담집의 방안에 들어섰더니 벽에 제법 큰 나무 십자가가 박혀 있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온 것 같았다.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했다. 마당으로 나와 그곳 성도님들의 얼굴을 봤는데 꼬혈뿔에서 진료 중에 보았던 힌두교인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피부도 윤택해 보였다. 선교사님께서는 이분들은 카스트제도나 윤회설 등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사육해서 먹고 농사도 지어 먹거리가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경외하는 자에게 ‘영육의 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을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이번 아웃리치팀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야말로 환상의 드림팀이었다.



박명희 집사
(인천 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CGNTV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

그들은 생명을 지킨 누구보다 용감한 부모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CGNTV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방송분량 때문에 다 담지 못한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온누리신문에서 재조명하는 코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CGNTV 다큐멘터리 ‘아가야, 엄마야’에 출연했던 박대원 목사와 서지형 사모의 사연이다. 박대원 목사와 서지형 사모는 자녀를 입양 하면서 알게 된 미혼모들을 섬기는 사역을 9년 동안이나 이어오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만난 미혼모와 미혼부 700여 명을 돕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거두고, ‘생명을 지킨 누구보다 용감한 부모’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박대원 목사와 서지형 사모는 9년째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돕고 있다. 그들이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돕기 시작한 계기는 입양이었다. 자녀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이었다. 그 길로 2015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돕는 비영리 기관 ‘러브더월드’를 설립했다. 러브더월드에서는 미혼모와 미혼부들의 출산 및 자립 등을 돕고 있다. 러브더월드는 미혼모와 미혼부들에게 친정집 같은 곳이다. 러브더월드에 들러 교육도 받고, 서로 안부도 묻고 있다.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인식

미혼모와 미혼부를 돕는 사역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고 민조차 하지 않고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바라보는 안 좋은 인식”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미혼모와 미혼부를 섬겨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유독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혼모나 미혼부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왜 없었어요? 크리스천 미혼모와 미혼부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발붙일 공간이 없대요. 미혼모와 미혼부가 녹아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래요. 혼전 임신했다고 상담을 요청했더니 교회에서 떠나달라고 말하는 리더십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박 목사의 지적처럼 유독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단체가 한 손에 꼽을 만큼 적다. 그마저도 수도권엔 벗어나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가 장애인, 독거노인, 재소자 등을 섬기는 데는 열심이면서 왜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섬기는 데는 소극적일까?

“혼전에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미혼모나 미혼부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한 자매는 목회자에게 혼전임신 문제를 상담했는데 ‘네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며 낙태를 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박대원 목사와 서지형 사모는 “미혼모를 섬기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고 강조했다.

다른 자매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교회 임직자였는데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당장 떨어져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낙태를 종용하거나 교회공동체를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소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미혼모와 미혼부들이 좀처럼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미혼모와 미혼부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까? 낙태를 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의 생명을 지킨 것만으로도 박수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굳이 비난할 상대를 찾아야 한다면 자녀를 책임지지 않고 도망간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희가 만나는 미혼모와 미혼부 10명 중에서 8명은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미혼모와 미혼부는 양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부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혼모와 미혼부들은 오죽하겠어요? 풀타임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대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혼모에게 임신출산 바우처, 기저귀 등의 출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출산 이후 자립이다. 혼자서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폭이 좁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커리어를 쌓는 것도 쉽지 않다.

“20~30대 미혼모와 미혼부들은 시설에 입소하기가 어려워요. 월세로 살면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일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빠르면 생후 100일이 지나면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데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사람이 없어서 일하는 중간에 와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혼모와 미혼부들이 경력을 쌓거나 교육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와 미혼부들은 자립을 위해 정말 피땀을 흘려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립을 해야 아이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힘들어도 자녀를 보면서 힘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미혼부들은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하기 어려워요.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는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외에도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016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미혼 부모는 약 3만 5천여 명이다. 그 중에서 미혼모가 2만 4천여 명이고, 미혼부가 1만 1천여 명이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이

나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혼모 35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1.6%가 월 근로소득이 없다고 했다. 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친부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는 78%,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9.4%에 불과했다. 히트엔던(자녀를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는 것)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낙태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미혼모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혼모관련 단체들은 미혼 임신부 96%가 낙태를 선택한다고 추정한다.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낙태와 입양을 선택하지 않은 미혼모와 미혼부들의 용감한 선택이 무색해질 것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미혼모와 미혼부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미혼가정을 섬기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이혼, 사별, 미혼 등을 이유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약 15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0%(국회입법조사처 2017)를 차지한다. 미혼모와 미혼부의 어려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역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서지형 사모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미혼모와 미혼부는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지켜보면 좋겠어요. 다들 강인하고 자립의지가 뛰어나답니다. 그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손바닥만 한 방이라도 좋으니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문의: 010-2236-4996

다시보기: CGNTV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아가야, 엄마야’ 검색

기도해주세요

1. 러브더월드가 섬기는 700여 미혼모와 미혼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2. 위기에 처한 미혼모와 미혼부들의 속소가 마련되기를

역사적 예수 연재 시리즈: 예수사역, 설교, 치유,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롱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예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 단지 영혼의 평강을 위한 잠언과 지혜를 들려주는 현인이 아니라 그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사람들의 영혼에 감동을 주며, 내면의 고뇌와 절고에서 이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가르침을 듣던 무리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는 어찌이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막 1:24). 그의 가르침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눅 4:18).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의 기름으로 임재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감히고 얽매인 자를 풀어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다.

기름부음(anointing)이란 감람기름을 머리와 몸에 바르거나 그 위에 붓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유대인의 관습에 있어서 기름부음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나 사람, 베엘의 거룩한 돌(창 31:13), 광야생활에서의 회막과 제단, 예언자,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부음은 기름부음을 받는 자에게 성별과 능력부여를 의미했다.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유대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일개의 나사렛 출신의 신흥 랍비에 불과한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단지 교훈의 설법에서 끝나지 않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 그리고 내면의 고통과 정신질환자들과 불치병에 신음하고 있었던 자들을 치유하는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설교와 가르침은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외면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했다. 예수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를 벗고 그가 주는 사랑의 멍에를 지도록 부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평강)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물질적인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b-21).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권능이 임재하는 하나님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안에서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비(非)가시적인 것이며, 영적이며 정신적 도덕적 실재이다. 오늘날 죄인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험벗은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인자가 선포되고 실천되는 처소에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인 실재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 실재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재이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이다.

확장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누룩은 반죽의 전체 양에 비해서는 작은 분량이나 누룩이란 효소에 의하여 반죽이 부풀도록 만든다. 이것은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의 작은 실재이다. 그러나 하나님 통치는 이 세상에서 도피한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 통치는 이 세상 안에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중생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적 도덕적 실재이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겨자씨(mustard seed) 같으나 싹이 터서 자라게 되면 4~5미터나 되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새와 짐승들이 와서 거하는 것과 같다. 밭에 뿌려진 씨는 역경을 거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씨는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히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져 억눌리기도 하고, 잘 여물어서 많은 결실을 하기도 한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씨 뿌리는

리게 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만 들어오셔서 내주시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로부터 중생의 도리를 듣고 그날 밤 중생의 경험을 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나중에 확증된다. 예수가 후일에 십자가에 처형되어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찾아가지 않았을 때 그는 예수의 시신을 돌려받아 도로 된 무덤에 안치한다. 이 용감한 행동 속에서 니고데모의 신앙은 확증되어진다. 니고데모가 그날 밤 중생의 도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러한 용감한 행동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통치의 실재는 사도 바울, 에티오피아의 내시, 고넬료,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등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구체적인 역사적인 실재로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만드는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와 세계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보편사 속에서 다윗 왕국,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 니느웨 도성의 회개,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 비텐베르크와 로마와 취리히의 종교개혁, 청교도 혁명, 청교도 순례자들에 의한 미국 건설, 1907년 평양대부흥 등 하나님 나라의 파편적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만 머무는 고정된 공간이나 어느 우주적 처소만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중생한 자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지니는 역동적인 영적 실재이다.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지상 위에 수직적으로 초월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3-4).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의 눈물과 애통과 사망과 아픔을 친히 싸매시고 완전히 치유해주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망과 이별과 고통이 지나간 곳이다. 사도 요한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계 21:1a),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계 21:2a)라는 표현에서 공간적인 뉘앙스를 시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므로 단지 공간적인 이해를 넘어서고 있다.

(끝)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사람들의 영혼에 감동을 주며, 내면의 고뇌와 절고에서 이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루어지고 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소아시아 각 지역(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등)에서 이룬 인격적인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지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실재였다.

예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거와 훼방”(마 15:19)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탐심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가난해진다. 천국은 오로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신비로운 내면의 실재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도덕적인 실재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을 다음같이 묘사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롬 14:17).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거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평강이다. 찬송가 469장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강과 같은 평화가 넘치고, 마음속에서 쉴 사이 없이 하늘의 곡조가 흘러나오고, 외부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솟아나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적인 평강이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이다. 이 평강은 구약의 시편 저자들이 누렸고, 신약의 사도들이 감옥에서 누렸고, 교부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성도들이 누렸고, 청교도 시대 성도들이 박해시절에 누렸고, 한국 교회 초기 성도들과 오늘날 북한과 중국의 지하

자의 비유로 설명하신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눅 8:5-8).

그리고 예수는 가라지 비유를 하신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여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 24-30).

종교인이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께 나아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인정했을 때 예수는 그에게 중생의 도리를 가르쳤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중생한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



일본어예배와 일본 비전교회 중고생들이 함께 모여 연합수련회와 비전트립을 실시했다.

“누구보다 애꿎는 심정으로...”

일본어예배, 한일 청소년 연합수련회 및 비전트립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 소속 중고등학생과 일본 비전교회에서 온 일본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연합수련회가 지난 8월 2일(금)

부터 4일(주일)까지 경기도 가평 꿈에그린 펜션에서 막 올랐다. 이번 연합수련회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은 누구보다 애꿎는 심정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8월 4일(주일)부터 6일(화)까지는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서울 본부와 양재 온누리교회 등을 방문하는 비전트립을 실시했다. 비전트립에 참가한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은 한국 대학생 복음화 현주소 및 온누리교회 선교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공유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남수단 난민 마을 급수사업 시작

더멋진세상, 11월까지 11개소에 수도 공급예정

NGO 더멋진세상이 남수단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간다 북부 부드리 마을에서 올해 11월까지 마을 언덕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낙차를 이용해서 11개소에 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급수사업이 완료되면 수동우물을 사용하던 난민 1만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6년

부터 우간다에 거주하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과 아동들에게 교육지원(부드리 초등학교 건축, 교사교육, 매일 2천5백여 명 아침, 점심식사 제공), 식수지원 등을 하고 있다.

OPM(우간다 난민 전담기구) 총괄 책임자는 “NGO 더멋진세상의 각종 지원사업 덕분에 출석률과 영양상태가 좋아졌다”며 감사인사를 했다.

/ 김영선 기자

청년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 참가자 모집

형제 81~89년생, 자매 85~89년생

온누리교회 청년부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iWe 프로그램은 9월 21일 오리엔테이션, 9월 27일(금)~29일(주일) 2박3일 수련회로 진행된다. 오리엔테이션 장소는 종로 서울극장, 수련회는 평창 더화이트호텔이다. 이번 iWe에서는 크리스천 결혼강의, 레크리에이션, 데이트 매니징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미혼 형제자매(형제 1981~1989년생, 자매 1985년~1989년생)이다. 이메일(cgkh0606@hanmail.net)로 신청서와 함께 소속 공동체, 이름, 연락처를 적어 보내면 된다.

6기 수요비전통독반 모집

9월 4일~12월 11일, 서빙고 콘서트홀

제6기 수요비전통독반이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수요비전통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90일 동안 성경일독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성경을 구

속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석근 목사가 강의한다. 성경읽기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9041-5538

서빙고 세례봉사자 모집

서빙고 온누리교회 세례사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교인이다. 봉사시간은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배기선 팀장(세례사역팀)은 “거룩한 세례사역을 섬길 동역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63(정빛나 간사)

제이홈 위탁가정 세미나

사회선교부 제이홈에서 오는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201호에서 ‘위탁가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위탁가정 세미나에 참석하면 가정위탁보호 제도와 가정위탁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2049-8210

CGN 드라마 <고고송>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상영

CGNTV가 제작한 드라마 <고고송>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부문에 초청되었다. 드라마 <고고송>은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영됐다. 제천국제영화제 한 관계자는 “드라마 <고고송>은 영화 속에서 음악의 폭넓은 표현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면서 “한국 음악영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7개국에서 온 이주민 40명 세례 받아

온누리M미션이 지난 8월 11일(주일) 안산M센터 온누리홀과 야외에서 연합세례식을 실시했다. 이날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에서 온 이주민 40명(성인 36명, 유아 4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은 찬양과 기도, 축사, 유아세례 및 성인세

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에서는 안산M센터 소속 교역자 11명이 세례를 베풀었고, 파택장로 8명이 봉사자로 섬겼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매년 열방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한 연합세례식을 열고 세례를 베풀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6706	구재명	OCC	1136740	정우진	CH630	1136779	조은정	Bridge33+	1136812	김윤희	인천 믿음
1136707	김태훈	신용산	1136741	김미영	가정사역	1136785	김은희	하나	1136815	김유진	마포
1136708	이수진	신용산	1136742	김찬희	양재	1136786	조재만	수원 서누리	1136816	김용진	S브릿지
1136709	정희운	수원 복누리	1136743	이정림	S브릿지	1136787	김유정	성동광진	1136817	김민영	하늘
1136710	이동석	서초B	1136744	여상희	도곡	1136788	김은지	남양주A	1136818	송원종	하늘
1136715	홍준배	Bridge33+	1136745	이주영	SNS	1136789	배정임	양지 동누리	1136819	서동현	하늘
1136716	이재경	부천 화평	1136749	오선희	대전 복누리	1136790	백용기	관악금천	1136820	이종현	하늘
1136717	김지형	S브릿지	1136750	서유진	강동파파스	1136791	조희호	대전 트리마스	1136821	김지호	하늘
1136718	이승원	고양은평	1136751	박정민	분당B	1136792	김남이	대전 남누리	1136822	송호준	하늘
1136719	김해리	여호수아	1136752	조인수	분당B	1136793	김미순	평택	1136823	김연재	하늘
1136720	이지수	여호수아	1136753	김동화	SNS	1136794	윤남영	마포	1136824	김남진	하늘
1136721	문기태	여호수아	1136754	김대은	SNS	1136795	유우가	대전중구예배	1136825	박찬영	하늘
1136722	윤지혜	여호수아	1136755	김재인	SNS	1136796	이혜리	강촌	1136826	최진희	J4U
1136723	김윤희	여호수아	1136756	민지희	SNS	1136797	오지선	S브릿지	1136827	김선천	W
1136724	송윤령	여호수아	1136757	이성준	SNS	1136798	이은석	영등포구로	1136828	박주연	W
1136725	이재형	여호수아	1136758	홍영표	SNS	1136799	정종균	중종로	1136829	한희정	성동광진
1136726	김성우	여호수아	1136759	이미현	SNS	1136800	황선주	서초B	1136830	김민정	갈렘
1136727	우지영	여호수아	1136760	온나래	SNS	1136801	고현정	Point5	1136831	이대윤	갈렘
1136728	심예은	서초C	1136761	홍영표	SNS	1136802	박성운	양재	1136832	정아영	갈렘
1136729	장연이	여호수아	1136762	강현주	양재	1136803	김예인	여호수아	1136833	오정훈	갈렘
1136730	문영진	여호수아	1136763	WUSHI	중국어예배	1136804	심영보	여호수아	1136834	김선경	갈렘
1136731	이서윤	여호수아	1136764	정인덕	서대문	1136805	홍민규	여호수아	1136835	이준호	수원 남누리
1136732	이아영	여호수아	1136765	이흥석	신용산	1136806	박하영	여호수아	1136836	양서진	양재
1136733	한수정	여호수아	1136766	김수연	강남B	1136807	이하늘	여호수아	1136837	최수미	신용산
1136734	박은진	여호수아	1136767	조민기	S브릿지	1136808	조모란	양재	1136838	최은영	인천 소망
1136735	박선희	여호수아	1136775	강승훈	부천 화락	1136809	여동준	이수			
1136736	문채원	Bridge33+	1136777	유영근	강남A	1136810	김영희	양지 서누리			
1136737	황성희	분당B	1136778	정상근	서대문	1136811	김윤숙	서초B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8월 25일 (주일)/시간: 오후 3:30/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2019년 6월 2일~2019년 8월 9일까지 등록 성도

강남A 공현도 김수경 변윤재 전현준	오경애 오일록 유다은 이은숙 이지향 이화자 장화진 홍성준	경기A 김현주	최수진	서초A 김강범 이경희B 진상원 함진아	서초C 김현이 김혜림 심예은 이혜승	양재 강현주 김찬희 김행근 박소영 박태섭 윤미희 윤현지	추민지 박동주 손사론 정승우
강남B 구연미 김선영 김세준 김윤희 백승현	강남C 문경원 임화순	분당A 곽민정 조성우		서초B 김신석 김윤숙 김의순 채정자	송파A 박현숙	송파B 김양호 김외자 윤경숙	양서진 정영선 조모란 조호현



주일강단

(3면에 이어)

7가지 치명적인 죄(7) - 탐색

건강한 우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 유혹에서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인 병사들과 함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유혹에 빠졌습니다.

남자가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눠야 할 존재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호, 안정, 위안을 가져다줍니다.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남자 됨을 경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유혹을 이길 힘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만큼 유혹에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의 아버지와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영원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아버지들, 육과 같이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아버지와 같은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건강한 영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모임이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젊은 커플들이 순모임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어르신들과 젊은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사랑, 육신의 부모님이 줄 수 없었던 영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친밀함에 대한 굶주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남자를 떠올리며 욕망을 품는 여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28절).

여기서 ‘떠올리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남자는 육체적인 눈에 약하지만 여자는 마음의 눈에 약합니다. 남자는 보는 것에 자극을 받지만, 여자는 듣는 것에 자극을 받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적 범죄로 확대되지만, 여자는 생각, 상상, 공상, 정신적 외도를 통해

성적 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순결을 지키려면 눈을 지켜야 하지만, 여자는 생각, 정서, 상상을 지켜야 합니다. 남자가 눈을 굶겨야 한다면, 여자는 상상, 공상, 불필요한 상상을 굶겨야 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돌봐줄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마음속에 깊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에 대한 굶주림을 성적인 욕구로 채우고 할 때 무서운 성적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인정과 칭찬에 굶주린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성적 죄에 빠집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창 3:16).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성에게 주어진 괴로움은 임신과 해산의 괴로움이 더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입니다. 후반부 말씀에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배하려 하나’라는 문장이 오래된 개역번역에서는 “남편을 사모하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어찌하면 당면하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원한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태슈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렬한 왜곡된 갈망, 욕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지배하려 하나”로 번역한 것입니다. 단순히 원하거나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갈망이기에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호락호락 지배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힘으로, 무력으로, 재력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아내를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관계입니다. 부부간에 정말 영혼과 영혼을 나누는 친밀함이 아니라 서로 지배하고 복종하는 갈등관계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정서적

공허함,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관심이나 대접을 받지 못하면 여자는 상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알아주는 소리가 들릴 때 정서적 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간음이라면, 여자가 남성과 정서적 친밀감의 외도를 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과 결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두 불의가 만나서는 절대 의를 이루지 못한다”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입니다. 만일 추구할수록 더 갈급하고, 채운다 해도 더 외롭다면 이미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적인 부도덕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요, 습관입니다. 어떤 생각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도 우리의 동의와 선택 없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나의 선택이요, 동의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앉아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박함과 결단입니다. 내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자르는 것 같은 결단이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유혹입니다.

거룩함이란 바른 선택이 모아진 바른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남자는 눈을 굶기는 것부터, 여자는 불필요한 공상을 굶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굶주림을 사람, 물질이나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결코 성적 유혹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이 되리라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모집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를 아시나요?



윤현규 목사
(갈렘공동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창 2:24).

나는 온누리교회 청년부 갈렘공동체와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를 섬기고

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교회를 섬기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가장 큰 기도제목 중 하나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다.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호감이 가는 이성생기더라도 신앙공동체 안

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너무 바쁜 직장일과 일상생활로 인해 지쳐있는 청년들이 이성을 만나 데이트하는 것이 물리적,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설사 이성을 만났더라도 서로를 진지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 바로 iWe이다.

iWe는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혼매칭 프로그램이다. iWe에 참여하려면 우선 지원서와 추천서부터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6명의 청년부 멘토들이 iWe 프로그램에 지원한 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면접하고,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한다. 멘토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는다는 심정으로 청년

들을 대한다.

iWe 프로그램이 올해 9월 21일(오리엔테이션)과 27일(금)부터 29일까지(주일) 2박3일 수련회로 진행된다. 올해 열리는 iWe는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 먼저 지원자들이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대여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종로에 있는 서울극장 일부 상영관을 대관해서 영화관람 및 가벼운 식사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iWe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또 다른 특징은 강원도 평창에서 2박3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수련회에서는 ‘크리스천 결혼’, ‘레크리에이션’, ‘데이트 매니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iWe 신청자들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을 줄 예정이다. 그동안 iWe를 진행해오면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지원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충분한 대화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수련회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열고 배우자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혼을 소망하는 온누리교회 미혼 청년들이 이번 iWe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iWe 담당 교역자 및 멘토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섬길 것이다.

2019 하반기 iWe 일정
일시: 9월 21일(OT), 27일(금)~29일(주일) 수련회
장소: 서울극장, 평창 더화이트호텔
대상: 형제 81~89년생, 자매 85~89년생
회비: 20만 원
문의: cgkh0606@hanmail.net

14 온누리신문

2019년 8월 18일(주일) | 제1258호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렉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영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온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52-2, 033-732-0044)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순수매장 잔여수량(기):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10-3927-0705) 2019년도 성찬포도즙 제조 서빙고 일정: 8월 26~27일 장소: 본관 지하 1층 한식당 대상: 집사, 권사 임직 후보자 중 사전 신청자 시간: 8월 26일 10~19시(점심시간 제외) 8월 27일 10~17시(점심시간 제외) * 서빙고 한식당은 8월 26일부터 28일 점심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양재 일정: 9월 4일 장소: 양재 식당 시간: 오전팀(8:00~13:00) 양재, 서초A, 서초B, 서초C 오후1팀(13:00~16:00) 경기A, 분당A, 분당B, 송파A, 송파B 오후2팀(16:00~19:00) 강남A, 강남B, 강남C, 강남D, 도곡 문의: 서빙고(02-3215-3661) 양재(02-570-7396) *계사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팡: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여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본관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2020년 상반기 결산예배 예약안내 일시: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예약: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가능 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부모님 문의: 서빙고(02-3215-3179) 양재(02-570-7505) *계사판 광고마감목요일 오후 4시
--	--	--	--

부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초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팡(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온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팡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을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O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8/4.11.18.25: 송도 컨벤시아 (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팡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킨댄서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아름다운 멜로디와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

MC 가수 김영우

8월 23일 방송

CCM 가수 '한웅재 목사' 편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소원' 등



8월 30일 방송

싱어송라이터 '커피소년' 편 '너는 특별해', '믿음', '힘내' 등



다시보기 www.cgntv.net / 유튜브 CGNTV 채널